

거짓말의 색깔과 온도



김철민 기자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김훈 작가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가 원작이다.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던 김훈 작가는 이 소설로 2001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가로 전향했다. 〈칼의 노래〉 집필을 위해 작가는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 사당에서 장군의 영정과 거대한 장군도를 하루 종일 마주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대화를 여러 날 거듭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이순신 장군 최후의 날인 노량해전 전황을 생생하게 포착했다. 왜군 총탄에 맞고 장군이 갑판 위에 쓰러졌을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썼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중략)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

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 나으리 총알은 갚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갚다. (중략)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중략)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 놓고… 내가 먼저… (중략)

무술년(戊戌年, 1598년) 11월 노량의 바다는 사납고 차가웠다. 철수하는 일본 수군 주력을 만난 이순신 장군은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적선 200 여척을 격침시켰다. 기어이 달아나는 왜군을 쫓다 대장선 장대 위에서 왜군 총탄을 맞고 53세로 불멸의 삶을 마감했다. 장군

은 전쟁 승리를 위해 최후의 순간에 아군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사실대로 말하는 대신 침묵으로 상황을 은폐하는 이 거룩한 행위...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선 거짓말이라고 했다. 상대방이 제때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상황을 유도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성경 맨 앞장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선의든 악의든 거짓말은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예라고 대답해야 할 때는 '예' 라 말하고,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땐 '아니오' 라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순간에 선택한 행동도 성서의 잣대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거짓말인 셈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종잇장보다도 얇박한 살벌한 전쟁터에서 적을 기만하는 거짓 행동을 일상의 잣대로 가늠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 나도 그렇다.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이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또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둘 다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에는 색깔과 온도가 있다.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가장 악질적이면서도 얼음장 같은 사악한 거짓말로 '시커먼 거짓말' 이라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 모략

하는 거짓말, 승진이나 진급을 앞둔 회사에서 경쟁하는 동료들을 근거 없이 포함하는 거짓말이 이런 부류라 할 수 있다. 주로 사기꾼이나 협잡꾼, 범죄자들의 거짓말이다. 그런가 하면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주고, 속아도 크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짓말은 미지근하면서도 뭔가 속물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른다. 장사꾼이 밀지고 판다거나 노인이 얼른 죽고 싶다거나 노처녀가 진짜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종류의 거짓말들이 이런 부류다. 자기방어이자 자기기만, 자기 위로의 수동적 거짓말이다.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실을 알게 돼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도덕적인 거짓말 또는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고 색깔로 따지면 주로 하얀색 계통이다.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나름 깔끔하고 차려입고 나온 동료에게 정말 멋지다고 말해 주는 센스있는 직원, 삶의 의지를 포기한 불치병 환자에게 특효약이 개발됐다며 비타민이라도 처방해 주는 의사, 기름진 음식을 싫어한다며 모처럼 사온 통닭 한 마리를 어린 자식들 앞에 내어놓고 멀쩡이 물려줬던 어린 시절의 내 어머니,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노랑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순신 장군의 거짓말은 모두 따뜻한 선하며 사람 냄새가 훈훈하게 나는 하얀 색깔 계통의 거짓말이다.



수신료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나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다. 지인들에게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다. 먼저 물어오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 스스로 털어놓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못난 가장이 조직에서 떠밀려 변방 한직(?)으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인 나보다 가족들 상심이 더 클 터였다. 나는 날마다 무언의 거짓말을 하며 살았고 날마다 괴로워야 했다. 어찌 알았는지 멀리 사는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보복성 조치로 PD, 기자, 앵커, 아나운서 등 방송현업에 있던 제작자들 상당수가 수신료국으로 강제 발령났다는 짭작한 신문 기사를 보았으며, 그 기사 안에 9시 뉴스의 전 앵커였던 내 이름이 실명으로 박혀 있노라는 내용을 전해주었다. 위로와 격려의 인사도 함께 곁했다. 다른 가족들이 그 기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괜찮다는 말을 담담하게 전했다. 또 가족들에게 특히 어머님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통화를 마쳤다. 괜한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게 싫어서 부탁

을 했지만 동생에게 나의 거짓말 행진에 동참해 달라고 권유한 꼴이 돼서 조금 미안했다.

거짓말의 유혹은 달콤하다. 10여 년 전 나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뉴스 특파원이자 지국장으로서 3년간 근무했다. 방콕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천국 같은 도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해서 세계 각국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방문하는 해외 첫 여행국가 1위가 바로 태국이다. 특히 방콕 카오산 로드는 태국의 전통적인 멋과 초거대 도시 방콕의 현대적인 낭만이 한데 어우러져 가성비를 최고로 따지는 가난하고 젊은 배낭 여행자들에게 성지(聖地)라 불리는 지역이다. 그 시절 방콕 특파원 업무의 절반은 여행객들 영접이라 할 정도로 직장동료, 친구, 지인들 방문이 잦았다.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발신 번호가 찍힌 휴대전화를 받아보니 국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였다. 주식으로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 몇 년째 얹혀살고 있다는 근황은 방콕 부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

“형님!, 저 OO 예요. 지금 동남아 여러

나라를 배낭 여행중인데요.

오늘 방콕에 들어왔어요. 저녁때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낮설고 물선 객지에서 따뜻한 저녁 한 끼 도움을 청하는 후배 전화를 마다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후배는 배낭여행자들 전형적인 모습 그대로 피곤한 표정에 남루한 행색이 역력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보름 만에 향락의 소비 도시 방콕에 들어온 헐벗고 굶주린 배낭여행자였다. 모처럼 얼큰하게 한식을 먹고 싶다는 후배에게 교민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에서 소갈비에 김치찌개 전골을 곁들여 푸짐하게 만찬을 대접했다. 서울에서 물 건너온 비싼 소주도 반주 삼아 곁들여졌다. 모처럼 긴장이 풀린 탓인지 후배는 달콤한 소주를 물 마시듯 마셨다. 만찬은 끝나가고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후배는 머나먼 타국땅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를 순수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2차로 입가심이나 하자며 카오산 로드에서 맥주를 딱 한 잔만 더하자고 내 팔을 잡아 끌었다. 2차로 자리잡은 카오산 로드의 한 대형 바(Bar)에는 은은한 조명에 잔잔한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다. 고단한 여정을 소곤소곤 달래는 세계 각지 배낭 여행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여행객들 가운데쯤 적당히 자리 잡고 두런두런 지나온 여정을 자랑하며 맥주잔을 몇 순배 기울이던 후배는 더욱 취기가 올랐

다. 삶은 흥당무처럼 불그스레 달아올랐던 얼굴은 어느새 조금씩 창백해졌다.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설 때가 됐다고 느낀 순간 후배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갑자기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내 몇 발자국 옮기지 못하고 드넓은 홀 가운데에 멈춰섰다. 그 순간 ‘우우웁~’ 하는 괴성과 함께 후배는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과도한 알콜 흡수 부작용으로 저녁 내내 먹었던 걸쭉한 음식물을 드넓은 홀 한 복판에 고스란히 쏟아냈다. 토사물의 시큼하고 혐오스런 악취에 놀란 여행객들은 9.11 폭탄 테러를 만난 듯 일제히 비명을 질러댔다. 혼돈의 아수라장에 다국적 대망신 잔치였다. 아! 이토록 추잡한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라니...!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뛰쳐나가 세계 각국 여행자들에게 거둬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 높여 사과했다.

“스미마센! 스미마센!(すみません - 죄송합니다.)

혼또니 스미마센!(ほんとに すみません - 정말 죄송합니다.)

난데, 하야꾸 오이데(なんで、はやく おいで - 뭐야, 빨리 오라구)”

코를 틀어막고 온갖 인상을 찌푸리는 세계 각지 여행자들에게 거둬 소리 높여 외쳤다. 얼른 후배를 낚아채 서둘러 계

산을 치르고 술집을 도망쳐 나왔다. 술값보다 다섯 배나 많은 팁을 청소비 명목으로 지불했다. 아득한 과거에 군대를 만기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대학생 시절, 등록금이라도 벌여 보겠다며 서울 이태원 뒷골목의 모조(짝퉁) 가죽제품 가게에서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방, 악세사리, 가죽점퍼 등을 팔며 어깨너머 배웠던 일본어가 이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한국말을 안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미안했으니까... 지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혼또니 스미마센(ほんとに すみません) 🙇

KBS 김철민 기자